



국토교통부

# 보도 설명자료

다시,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 일시 | 2022. 8. 5.(금)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| 자동차정책관          | 책임자 | 팀 장 조은혜 (044-201-4760) |
|       | 자동차보험팀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이혜진 (044-201-4872) |
| 보도일시  |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뉴스1 등 8.5(금)) >

◆ 교통사고 경상치료시 4주 후 진단서 다시 내도록... 한의협“나쁜 규제”

○ 4주일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 부당하게 제한

□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도록 하여 사회 안전망 역할을하는 의무보험이나, 최근 경상환자\*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 지출\*\*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
\* 상해 12~14등급: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염좌, 3cm 미만의 얼굴 부위 찢김 상처 등

\*\* 부상자수 : ('16) 163 만명 → ('21) 166만명 / 보험금 : ('16) 3.3조원 → ('21) 4.5조원

경상보험금 : ('16) 1.9조원 → ('21) 3조원 vs 중상보험금 : ('16) 1.4조원 → ('21) 1.5조원

○ 특히, 단순 염좌 등 경상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 없이 필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\*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
\* (부작용 예) 후미충돌(범퍼 30만원)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(500만원)

□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기간\* 등을 고려하여 사고 이후 4주 동안은 기본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,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만 제출하면 진단서 상 치료기간을 추가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진료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(7.15~8.5) 하였습니다.

\* 경상환자 평균진료기간 21.1일(81%가 4주 이내 진료 종결)

○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'23.1.1에 진료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보험금 누수에 따른 국민 보험료 증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